



제671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0년 1월 22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는 세계문화, 이집트

우수연, 이집트실 18:00~18:30

약 5,000년 전에 시작된 이집트 문명은 이집트의 마지막 파라오 클레오파트라 7세가 로마에 의해 무너지는 기원전 1세기까지 약 3,000년간 지속되었어요.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을 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나라의 90%가 사막인 이집트는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인 나일강 덕분에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빛나는 그들의 고대 문명 역시 어머니 나일강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이집트를 ‘나일의 선물’ 이라고 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고원지대로부터 흐르는 청 나일(Blue Nile)과 우간다와 수단을 지나가는 흐린 회색의 침전물로 하얗게 보이는 백 나일(White Nile)이 합쳐지는 곳은 수단의 하르툼입니다. 하르툼에서 만난 백 나일과 청나일은 카이로를 지나 삼각주에 도달합니다. 백 나일은 나일강의 수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면, 청 나일은 강의 유량 변화를 담당합니다. 나일강의 주기적인 범람으로 인해 비옥한 검은 흙이 하류의 충적지대에 공급되었고 이는 찬란한 문명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수천 년 간 지속되었던 범람은 1970년 나일강의 유량을 안정화 시킨 아스완 하이댐으로 인해 더 이상 보기 어려워 졌습니다.

나일강 주변의 늪지대 풍경을 보여주는 전시품을 보면 파피루스로 만든 배 안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남성들이 보입니다. 아래에 보이는 하마는 이집트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동물이면서 다산을 상징하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타웨레트라는 하마의 머리를 한 신은 이집트 신화에서 출산을 관장하는 신으로 나타납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의 범람으로 모든 것이 다 휩쓸려 간 후 다시 생명들이 살아나는 자연의 사이클을 보며 죽음 후의 삶을 믿었습니다. 고왕국 이전에 살았던 이집트인들은 자연을 숭배하고 자연의 경이에 놀라며, 주변 동물들의 특성을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믿음에 투영시켜 신의 모습으로 만들어 경배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영혼이 다시 돌아와 영생을 누릴 거라는 믿음으로 미라를 제작했고, 이를 신격화된 동물에게도 적용해 동물 미라를 만들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의 삶 자체가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제671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0년 1월 22일)

특별전 <인간, 물질 그리고 변형-핀란드 디자인 10 000년>(3)

백승미, 특별전시실 18:00~18:30

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수 십 년 전만 해도 지게는 우리나라 농촌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생활 용품이었습니다. 핀란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단순하고 날렵해 보이는 핀란드의 지게는 사람이 목과 어깨를 어떻게 사용했을지 상상을 불러일으킵니다. 인간 신체에 도구를 어떻게 연결시키는가에 따라 우리는 신체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일들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몸에는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도구를 활용할 때 우리의 뇌가 그것을 신체의 확장으로 인식하고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핀란드의 지게와 한국의 지게는 모습은 다르지만, 힘을 분산시켜 물건을 거뜰히 운반하기 위한 최상의 설계 조건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지게는 양동이를 매달아 운반하는 기능 때문에 무게를 최소화해야 했습니다. 간단하고 가벼울 뿐만 아니라, 목과 어깨에 닿는 부분이 조각된 형태, 양동이를 고정할 때 사용하는 양 끈의 위치 등을 보면, 사용자의 신체를 형태적으로 철저히 생각한 제작자의 세심한 고민이 느껴집니다. 낙하산 부대용 배낭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백팩 틀은 알루미늄 관을 구부려 만든 것입니다. 마치 미래형 디자인처럼 단순해 보이지만, 인체 역학을 고려한 설계가 돋보입니다. 인간의 능력은 이렇듯 신체 기능을 확장시켜 주는 보조도구들과 함께 진화해 왔습니다.



물지게
나무-끈, 뤼헤마(Pyhämaa)
©핀란드문화재청 민족학자료컬렉션



〈LJK12〉 백팩 틀
구부린 알루미늄 관, 코스키넨(Harri Koskinen)이 사보타
(Savotta) 사를 위해 디자인함, 2012
©핀란드국립박물관

고려 묘지명의 세계

강민경, 113호 고려1실 19:00~19:30



호장 김지원의 딸 김씨 묘지명,
고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덕수2580).

옛 어른들은 사람이 죽으면 추모의 마음을 담아 그의 생애를 담은 글을 짓고, 무덤에 같이 넣어주었습니다. 그것을 묘지명墓誌銘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런 장르를 묘지墓誌 또는 묘지명이라고 했는데, 점차 그러한 글을 새겨 넣은 돌이나 도자기 같은 물건도 묘지명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묘지명은 중국 후한後漢 때부터 나타나 주로 귀족들 사이에서 유행하며, 한반도에는 삼국시대부터 알려졌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유행한 것은 고려시대의 일입니다.

고려시대의 묘지명은 지금까지 모두 320여 건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대부분은 왕족이나 관료, 승려 같은 고위층을 위한 것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고려 묘지명은 대개 점판암이라는 돌을 네모반듯하게 다듬어 글자를 새겼으며, 더러는 석관石棺의 안쪽 면이나 벼루에 새기기도 했습니다. 돌을 다듬는 방식이나 글·글씨의 수준이 천차만별인데, 사회적·경제적 조건의 차이로 보입니다.

고려 묘지명의 내용을 들여다볼까요. 묘지명 같은 글은 대개 인적사항-생애-생애에 대한 평가 같은 식으로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글들을 읽다보면 고려 사람들의 삶과 생각이 고스란히 담겨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고려1실에 전시되어 있는 <복녕궁주福寧宮主 묘지명>을 보시지요.

天子之女兮 如月在望 천자의 따님이여, 보름달 같으셨네

고려를 다스리는 국왕을, 황제의 또 다른 칭호인 ‘천자’ 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이는 고려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관념을 반영한 표현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고려 묘지명 안에는 조상이나 자기 가족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수명壽命이나 부귀富貴의 척도가 어떠했는지, 주인공이 살던 당시 사회의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같은 다양한 사실들이 실려 있습니다. 이 안에 고려를 이끌던 사람들의 세계가 담겨있다고 해도 크게 지나치지 않은 것입니다.

제671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0년 1월 22일)

가야본성-칼과 현의 기획과 구성

윤은식, 기획전시실 19:00~19:30

가야의 존재방식은 공존입니다. 여러 가야가 함께 어우러져 살았습니다. 1부 ‘공존’에서는 520여 년간 가야가 추구했던 공존의 흔적을 찾아봅니다. 가야의 여러 나라는 제각기 자율적인 대외관계를 유지하였고, 다양하고 개성있는 양식의 토기를 생산하였습니다. 가야 사람은 남방과 북방 등 여러 곳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살았으며, 다양한 문화를 누렸습니다.

2부 ‘화합’에서는 가야가 공존을 지속할 수 있었던 원동력을 살펴봅니다. 가야의 여러 나라는 중앙집권화한 통합국가인 삼국에 맞서기 위해 서로 뭉쳤습니다. 5세기 후반 가락국은 낙동강과 섬진강의 여러 세력을 규합하고, 남제에 사신을 파견하여 국제적 위상을 새롭게 정립했습니다.

3부 ‘힘’에서는 철의 나라 가야의 모습을 조명합니다. 공존은 힘을 갖추었을 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야의 힘은 철을 다루던 기술에서 나왔습니다. 가야가 생산한 철갑옷은 삼국에 뒤지지 않는 뛰어난 제철기술과 이를 기반으로 한 군사력이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4부 ‘번영’에서는 4세기 전반 이전 동북아시아의 국제시장으로 번영을 누린 가락국이 왜 강자의 패권으로 가야를 통합하지 않았는지를 살펴봅니다. 철과 여러 나라의 특산품이 모이는 당대 최고의 국제시장으로 번영을 누린 가락국의 모습은

‘가야본성-칼과 현’ (2019.12.3.~2020.3.1.)

최고 지배자의 무덤에 타임캡슐처럼 남아있습니다. 가락국은 물질적 번영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힘(무력, 이념, 경제력)을 갖춘 지배자가 있었지만, 통합한 국가의 힘에 눌려 4세기 후반 이후에는 점차 쇠약해졌습니다.

